

# 서늘한 날씨에 난방용품 판매 본격

## 도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난방용품 매출액 전년동기대비 20% 상승

가나인 폭염이 지나고 아침 저녁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소비자들이 난방용품 준비에 나서고 있다. 18일 전북지역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10월 들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을 미리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마트 전주점은 10월 2주 동안 판매한 난방용품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비슷한 지난해 10월 상반기 역시 전년동기비 15% 가량 매출이 늘었는데 이는 갑작스런 기온 저하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는 파악하고 있다. 이마트 전주점 측은 "올해 폭염이 지속된 기간이 길어졌다다 갑작스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자 소

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더욱 내려간 것 같다"면서 "아직은 보일러를 가동할 때가 아니라서 잡자리 바닥 및 공기를 잠깐 데울 목적으로 전기히터 및 전기요, 온수매트 등을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경우는 10월 첫째주에 난방용품을 부리부리 입고 시켜 판매에 나서고 있다. 전주점 관계자는 "보통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난방용품이어서 10월 초에 판매가 갑자기 증가할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면서 "난방용품을 서둘러 입고한 덕분에 관련 제품 매출이 2주전대비 15~20%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23개 전자제품 전문대리점을

보유한 롯데하이마트 전북지사의 경우 이달 17일까지 겨울난방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몰려 전달 전무하던 난방용품 매출이 9,10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전북지사 관계자는 "10월 들어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년과 비슷하게 난방용품 판매율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승세는 12월 한파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불경기로 난방비 걱정이 큰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잠깐씩 소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난방용품을 찾고 있다"면서 "온수매트·전기매트·온풍기·전기요 등 가격과 에너지효율이 좋은 제품들이 인기다"고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



**모자 4형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7 S/S 헤라 서울패션위크(HERA Seoul Fashion Week)에서 정광호 디자이너 커투스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다.

## “한국 농산업 신가치 창조 나선다”

### ‘Top 5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쌀가루·곤충 등 이용

농촌진흥청이 융복합을 통한 농산업 신가치 창조 및 지속 성장을 이끈 TOP 5 융복합 프로젝트를 19일에 출범한다. TOP 5 융복합 프로젝트는 기존 연구방식과 달리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 내외부 융복합 연구팀을 구성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됐다. 프로젝트별 주요 연구개발 내용을 보면, 먼저 ▲쌀 소비 확대 방안의 하나로 쌀가루에 주목해 쌀가루 전용 품종, 쌀가루 대량유통을 위한 가공기술 및 제분기 개발을 통해 가공용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하고 쌀의 구조적 재고 문제를 풀어나간

다는 계획이다. 또한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시스템 표준화 및 핵심기술의 국산화 ▲반려동물 DIY 사료, 곤충 및 쌀 이용 기능성 사료 개발 및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지원 ▲발효식품 개발, 재배양식 표준화 및 농기계 개발·보급 ▲곤충의 식품 소재화 및 화장품·의약 바이오신소재 물질 개발 등도 지속적인 과제다. 정광진 농진청장은 “TOP 5 융복합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농업이 다시 한 번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은행 무분별한 마케팅 문자메시지 ‘골머리’

### 올해 8월까지 마케팅 목적 문자메시지 건수 총 7553만 건

시중은행들이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사별 문자메시지 발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마케팅을 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건수는 총 7553만 건이다 이는 ‘연계’와 관련해 발송한 메시지 건수인 1990건에 비해 4배에 가깝게 많은 수치. 더욱이 마케팅 문자메시지 관리를 하지 않아 발송 건수가 확인되지 않은 4군데 은행사의 문자메시지 수를 합하면 최대 1억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사의 문자 메시지 같은 통신 광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관계가 있지만 운영에 관한 기준이 되는 시스템이나 시행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은행 대출 문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적절한 시행령 및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민근 기자

## 전주발효식품엑스포 프로그램 풍성

### 구인구직 박람회와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의 시민강좌 등

오는 20일 개막하는 제1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식품기업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참관객들을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눈길을 끈다.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설전시관 운영과 더불어 22일에는 전북도 우수인력의 역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발전과 농생명·식품산업을 이끌 핵심인력의 고용창출을 위한 2016 식품산업 구인·구직 취업박람회를, 23일에는 ‘당신의 미각을 믿지 마세요’로 유명한 맛칼럼리스트 황교익의 시민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식품산업 구인구직 취업박람회는 전북도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두식품과 GMP, 엄지식품, 새물식품, 참바다(영) 등 성장 유망기업 36개사(직접 2개사, 간접 15개사)가 참여해 지

역인재 등용에 큰 장을 마련한다. 행사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발효식품엑스포 행사장 내 비즈니스관에서 진행되며,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정보제공 및 부대관으로 구성해 취업컨설팅(이력사작성, 면접스킬 이미지메이킹 등), 현장면접 및 채용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3일에는 대한민국 대표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 씨가 참여해 ‘한국인의 음식습성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향’, ‘맛’이라는 감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내용의 시민강좌 프로그램을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한다. 한편, 제1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오는 20일부터 닷새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김민근 기자

###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보이콧피싱 ‘소비자 경보’

가짜 우리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출방자형 보이콧피싱 피해가 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우리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출방자형 보이콧피싱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시범은 우리금융지주의 로고를 도용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회사인 것처럼 피해를 속여서 안심시킨 후,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선입금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 등 유선 상으로는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근 기자

## 물 관리 현장설명회 개최

농어촌공 정읍지사, 농업용수 관리시스템 등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수리시설관리원, 쌀 전업농, 지역 농업인대표 등 125여 명을 초청해 2016년 물 관리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설명회에서는 수자원종합 상황실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TM/TC)을 소개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수자원관리현황과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등 지사 전반의 주요업무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내고향 물해설가(전주 원주임실지사 성치문 차장)를 초빙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물의 소중함’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물과 수리시설을 활용, 지역의 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동환 지사장은 “올해 가뭄에도 불구하고 벼농사가 잘된 것은 지역농업인들이 물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농업인과 협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나서

정부가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적법화할 계획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9월 진행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농가는 전체허가·등록 농가 12만6000호 중 6만9000호로 집계됐다. 대상농가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할 방침이다. 1단계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 이상(71두), 돼지 600㎡ 이상(760두), 닭·오리 1000㎡(2만수) 이상 농가로 2018년 3월2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2단계는 소 400㎡ 이상(57두)~500㎡ 미만(71두), 돼지 400㎡ 이상(506두)~600㎡ 미만(760두), 닭·오리 600㎡ 이상(1만2000수)~1000㎡ 미만(2만수) 농가로 기한은 2019년 3월24일까지다. 소·돼지 400㎡ 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 미만(1만2000수)의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지방자치단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및 애로·건의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무허가축사 우수사례 워크숍을 11월 개최해 지자체별 우수농가(30호)를 발굴해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말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장관상장(10점)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15개, 4572억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뉴시스

### 베베로데이 누적매출 1조1000억원

11월1일 ‘베베로데이’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18일 롯데제과에 따르면 베베로데이는 1996년 지방의 한 여중생들이 11월1일 베베로를 주고 받으며 “날님 해지자”며 서로를 응원했던 것에서 시작됐다. 다른 기념일들과 달리 자발적으로 생겨난 기념일로, 사랑과 우정을 전하는 날로 정착했다. 베베로데이가 탄생한 시점부터 올해 9월까지 롯데제과가 20년간 거둔 베베로 매출은 1조1000억원이다. 이를 오리지널 초코베베로로 환산하면 약 28억갑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52갑씩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또 28억갑을 일렬로 길게 늘어 놓으면 약 42만km로, 지구를 10바퀴 이상 돌 수 있는 양이다. 롯데제과가 1983년 출시 시점부터 베베로데이 탄생전인 1995년까지 베베로로 거둔 매출은 1600억원 수준으로, 베베로데이 이후 매출이 약 7배 높아졌다. 특히 올해는 베베로데이(11월1일)가 금요일과 겹쳐 지난해 매출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